

大學에서의 敎職課程

어떻게 運營할 것인가

石 泰

鍾 (尙志大 敎職科)

I. 序

교사는 자연히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교사란 그 양성과정에 따라 훌륭하게 길러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제도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양성기관이고(目的制), 또 하나는 그 이외의 기관이다(開放制). 예를 들어, 教育大學·師範大學·韓國敎員大學校는 전자에 해당되고, 대학의 敎職課程은 후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부에 의하여 일반대학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교원이 양성되기 시작한 것은 1955년의 일이었다. 그 후 1962년 혁명정부에 의해 일시 폐지되었다가 1963년에 다시 부활된 이래 최근에는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숫자가 사범대학 출신자보다 더 많은 형편에 있다. 원래 대학에 교직과정을 설치한 것은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의 교과 교사를 양성하거나 또는 교원의 需給上 사범대학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교직과정은 그때 그때의 어떤 명분에 의하여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승인·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글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직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추출한 다음 그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직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며 나아가 교직과정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一助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II. 大學敎職課程 운영상의 問題點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직과정을 1년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무엇인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씩 안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직과정에는 제도적으로 또는 운영상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여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敎職課程 科目과 관련된 問題點

교직과정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에서 7과목과 교과교육 영역에서 2과목, 그리고 교육실습 영역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교직의 전문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교직과목을 더 많이 부과한 일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 교직이론 영역에서 새로운 과목 또는 명칭이 바뀐 (또는 통합된) 과목이 있는데 이들 과목이 과연 얼마만큼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교육철학 및 교육사 과목이나 또는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을 어떻게 한 학기의 수업을 통하여 적절히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어쩌보면 교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계고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교과목에 걸맞는 교재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거나 또는 교수요목에 대한 대체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는 증전의 교재들을 평면적으로 하나로 합쳐 적당히 이름만 바꾸어 쓰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교직이론 영역에서 가장 문제되는 과목은 아마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종래에 교수되지 않던 과목이므로 교수요목에 대한 합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수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족한 교수요원으로 교직과정이 운영되다 보니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이 과목을 담당하거나 또는 타영역 전공 교수가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교직담당 교수는 교직과목을 전부 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적 여건에서 별 저항감 없이 수용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여건의 합리화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독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독문학을 가르쳐도 되며, 또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 민사

소송법을 가르쳐도 괜찮다는 주장과 같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들을 전담할 교수요원의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등장되었다.

둘째로, 교과교육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한마디로, 교과교육론은 현행 교직과정 운영상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敎科의 이론적 배경이나 교과교육의 목표, 중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 전반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목인 교과교육론은 현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으며 또한 마땅한 교재도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전담 교수요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분야를 담당할 교수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는 과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본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교과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대학원과정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양성과정을 거쳐 양성된 교과교육 전문가들이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도 전담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과목을 국어과의 경우 국어학 관계 교수가, 체육과의 경우 체육학 관계 교수가 담당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극히 일부 대학에서 교육학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교육학적 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요컨대, 교직과정의 敎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교과목의 통합 및 신설은 과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다.

2. 敎職과정 履修學點과 관련된 問題點

교직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은 1984학년도부터 교사의 자질 향상과 교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敎職理論 영역에서 최저 7과목 14학점 이상, 敎科敎育의 영역에서 2과목 4학점 이상, 그리고 敎育實習 영역에서 4주 이상 2학점으로 그 기준을 종전 16학점 이상에서 2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실험대학 이래 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이 140학점으로 하향 조정된 데다 그 140학

점 중에 교직과정 26학점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있다. 따라서 교직과정 이수자는 같은 학과의 다른 학생보다 전공선택이나 기타 영역에서 20학점 내외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전공분야와 교직과정, 이 두 가지가 다 소홀히 되기 쉽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상, 같은 학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교직과목과 중복되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당해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3. 교직과정 履修 예정자 選拔과 관련된 問題點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하는 일은 교직과정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교부는 1982학년도부터 당해 학년의 당해 학과 졸업정원율의 30%(사서교사, 양호교사 등 제외) 이내의 범위에서 제 2학년중(초)에 人性, 適性 및 成績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발된 이수 예정자명부는 제 3학년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당해 학과 학생 모두에게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이는 30%로 대폭 감축되었다. 생각컨대, 교원수급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하고 싶으나 이러한 감축조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근본적 문제점을 회피하기 어렵다.

첫째로, 이수 예정자를 30%로 제한한 것은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개방화라는 국가 기본정책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원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발상도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이고 또 교육여건이 나쁜 지금, 교직에의 취업이 어렵다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교원수급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부족한 임기응변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자격증이란(교원자격증 이외의 것도 포함하여) 그 방면에 그러한 資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긍지를 갖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며, 또 10년 후 20년 후에 당해 업종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법이다. 그러면 어떤 이는 말할 것이다. 양성과정에서 이수 예정자가 많으

면 전문적인 지도가 결여된다고. 그러나 그러한 말은 목적과 수단을 착각한 데서 나오는 말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교수방법을 개선하는 등 훌륭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선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서 선발 시기와 선발 기준의 문제가 있다. 문교부가 대학에 시달한 바에 의하면, 제 2학년초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히 제 1학년 때를 기준으로 당해 학과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때 교직과정 교수들은 1학년 때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의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제 2학년초부터 교직과정이 개설되므로 별도의 채널을 통하지 않는 한 희망자의 적성이나 인성 같은 것은 거의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1년이라도 가까이서 지도해 본 당해 학과 교수들이 1학년의 성적과 인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교직과정을 이수할 예정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 이들을 가르칠 담당 교수가 이처럼 철저히 배제되는 점도 문제이지만 1학년때 성적이 우수하다 해서 그 학생이 계속해서 교직과목 공부를 잘 해줄 것이라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말이다.

4. 教育實習과 관련된 問題點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참관실습·실무실습·수업실습을 경험하는 과정으로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고 학년 때에 이수하게 하고 있다. 교육실습이야말로 교직과정의 결산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현행 4주간의 교육실습기간으로서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습기간 4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우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1년 인 경우도 있다. 어쨌든, 현행 4주간의 실습으로서는 교직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둘째로, 교육실습 대상학교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일선 중·고등학교의 비협조는 교직과정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 어떤 학

교에서는 가급적 실습지정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일부 학교에 과도하게 실습생이 편중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빚기도 한다.

Ⅲ. 改善方向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의 순에 따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敎職課程 과목과 관련하여

1) 통합된 과목과 신설된 과목에 대한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새 과목에 관한 기본적 교수요목이 상세화되어야 하고, 또 교재들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학회나 연구기관들은 이 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직과목은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전담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타분야 전공 교수가 가르치면서 전문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대학원은 특히 교육공학 전공과정이나 교과교육 전공과정을 설치하여 이 분야의 교수요원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교직과정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제2학년부터 할 것이 아니라 제1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제4학년 때에 교육실습을 시키는 경우, 4학년 2학기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그렇게 되던 교수의 수업 부담이 늘어 밀도 높은 수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1학년 2학기부터 이수하게 하면 예정자 선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2. 敎職과정 履修學點과 관련하여

교직이수자들은 지금의 졸업소요 최저학점과는 별도로 20학점 이상을 취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전공과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교직과정도 충실하게 이수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敎職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과 관련하여

1) 민주화, 개방화의 원칙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그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할 차제에 교직이수 예정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또 선발된 자만이 이수한다 해서 졸지에 우수한 교사가 양성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2) 교직과목의 성적이나 인성 등이 참작되고 또 선발과정에 교직 담당교수의 의견이나 평가를 반영하려면 선발 시기를 제3학년초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직이수가 전공과정과는 별도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현행 제2학년 선발을 주장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4. 敎育實習과 관련하여

1) 현행 4주간의 교육실습은 참관실습·실무실습·수업실습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극히 형식적이고 부실한 실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실습의 의의를 살리고 교직생활이 대체로 이렇구나 하는 정도를 체득케 하려면 적어도 한 학기 동안은 실습을 해야 한다고 본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야말로 이론적으로 형성된다기 보다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시간을 부여해야 마땅하다. 교육실습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실습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마다 듣고 있는 말이다.

2) 교육실습 대상학교를 배정하는 업무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일률적으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중학교는 소관 교육(구)청이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맡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업무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며 행정체제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어떤 지역의 중학교의 학급 규모, 수업선택과목 등에 관한 실정은 교육위원회보다 당해 교육(구)청이 훨씬 더 소상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육실습은 일차적으로 중학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